

Learner Response to Using CAT Tool at Graduate-level Specialized Translation Class: With a Focus on Political and Legal Translation Class

Jiyoung Park

Abstract: This study reports graduate student responses to a specialized translation class where the learners were required to use a CAT tool, and collected student responses. The research method and details are as follows: The students of a Political Legal Translation class were taught how to use a CAT tool and required to translate weekly assignments throughout the semester.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students were survey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dmitted that the CAT tool was useful in effective management of translation projects and language assets, and they were willing to keep using the tool. However,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as they were not fully accustomed to the tool use and did not have enough language data to utilize. In future classes, these challenges could be addressed by including team projects where the learners work together to search for bilingual legal texts and convert them into language data to be used in classes. It would expedite accumulation of language assets and encourage students to help each other in learning how to use a CAT tool.

Key Words: Computer-aided Translation (CAT), Machine Translation, Political and Legal Translation, Specialized Translation, Post-editing

CAT을 접목한 통번역대학원 전문번역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 연구: 정치법률번역 과목을 중심으로*

박 지 영**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통번역대학원 전문번역 수업에 컴퓨터보조번역도구 활용을 접목하여 수업하고 학습자 반응을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정치법률번역 수업의 첫 2~3주 간 CAT툴의 활용법을 교육한 후, 학습자들이 매주 제시되는 과제를 CAT툴을 활용하여 번역하도록 하였다. 학기 말 설문조사를 통해 CAT툴 활용을 접목한 전문번역 수업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CAT툴 활용이 번역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유용하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툴 사용 미숙과 축적된 충분한 언어데이터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제언: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기간 내 언어자산 축적과 잦은 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팀프로젝트 등의 공동작업을 수업에 포함할 수 있다.

핵심어: 기계번역, 컴퓨터지원번역, 전문번역, 정치법률번역, 포스트에디팅

□ 접수일: 2022년 7월 29일, 수정일: 202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62941).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초빙연구원

(Researcher,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Email: jy.interpreter@daum.net)

I. 전문번역사 양성 시 CAT활용의 필요성

통번역대학원이 배출하는 전문번역사의 역할과 업무 방식은 상시적으로 CAT툴을 활용해 작업하는 LSP 번역사들과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CAT툴이나 기계번역의 감수(postediting)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과 같이 문장이 단순하고 표현의 반복적 사용이 잦은 텍스트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번역하는데 주로 활용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번역대학원이 태동한 유럽의 EU집행위원회 번역총국을 포함해, 해외에서는 CAT툴이 IT, 정부기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Gaspari et al., 2015: 11). 학계에서는 기계번역의 가용성이 이미 문학번역을 대상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국내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전문번역사 대다수가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인하우스로 근무하고 있어, 그중 지속적 대량 번역 수요를 가진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CAT툴을 근시일 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법제연구원이 2020년 트라도스를 전격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번역 실무와 학문 발전을 선도해 온 통번역대학원들은 장인정신에 입각한 수작업 위주의 번역 수업에서 벗어나, CAT툴의 활용과 기계번역을 전문번역교과에 접목할 효과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대학원이나 학부의 번역학 과정에서조차 기계번역감수에 관한 연구와 실습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 통번역대학원에 개설 중인 컴퓨터보조도구를 활용한 번역 수업(기계번역 수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점을 보완한 새로운 방식의 기계번역 수업을 구상한다. 마지막으로 설계한 수업 모형을 실제 적용한 수업을 실시한 후, 학습자들의 반응을 수집, 분석한다.

II. 통번역대학원 개설 현행 기계번역 수업

1. 학부 기계번역 수업과 차별화 미비

지금까지 CAT툴이나 기계번역감수를 적용한 번역 수업에 대해서는 대학원보다는 학부에

서 활발히 연구되었다(김순미, 2017; 마승혜, 2018; 이상빈, 2017; 2018a; 2018b). 이 두 가지가 학습자의 언어 능력 부족이나 결여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Flanagan & Christensen, 2014), 학부에서 관심이 더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통번역 석사 과정에서는 김정연(2018), 박혜경(2018)이 기존 번역 수업에 포스트에디팅을 접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은 앞의 학부 수업들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대상 과목이 정보적, 설득적, 표현적 텍스트를 혼합하여 다루는 ‘일반 번역’ 수업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번역 수업이 아니다. ②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 결과에 대한 포스트에디팅을 시도해, 전문번역사들은 사용하지 않는 번역엔진을 활용했다. ③ 수업 후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주관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감상과 수업에 대한 수용도를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했다. 적어도 기계번역수업에 한해서는 국내 학부 수업과 통번역대학원의 수업이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일반인을 위한 무료 번역엔진 활용

기계번역 수업에는 장르에 특화된 번역 엔진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도된 석사과정의 기계번역 혹은 포스트에디팅 수업은 ‘구글 번역’을 사용했다.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 등 무료 NMT 서비스는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Mónica, 2018: 356), 전문번역사들이 활용하도록 개발된 것이 아니며 번역 산업의 수요와도 관계가 없다.

실무 현장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할 때에는, 먼저 주제 분야(domain)에 대한 원문·번역문 쌍과 글로서리를 번역 엔진에 입력하여 학습시킨다. 기계 번역은 제한된 장르와 텍스트타입, 언어 등 특정조건 하에서만 효과적으로 번역하므로(Raido, 2016: 982), 기계번역 엔진 튜닝(tuning)이 필요하다. 기계번역의 품질에 따라 포스트에디팅의 정도나 방식 또한 달라지므로, 번역의 주제에 맞게 훈련되지 않은 일반 엔진을 활용한 수업은 전문통번역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기계번역과 관련된 전문번역사의 다양한 역할 미반영

선행연구(김정연, 2018; 박혜경, 2018)에서 보고된 석사 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서는 포스트에디팅 이외에 기계번역 활용 전·후에 번역사가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을 교육하지 않

았다. 기계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스트에디팅 이외에도 기계번역 엔진의 튜닝, 통제 언어 사용, 번역메모리의 관리가 요구된다(박지영, 2017: 144; 진실희, 2019: 200). 따라서 기계번역수업 내용에는 포스트에디팅, 이중언어자료의 조합(alignment) 작업을 비롯한 번역 메모리의 관리, 용어데이터의 처리, 글로서리 생성, SDL Trados Studio와 MemoQ 등 컴퓨터보조번역 소프트웨어의 활용, 품질보증, 품질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Mónica, 2018: 360). Mellinger(2017: 285-289)는 이 중 전문용어관리, 포스트에디팅, 통제언어, 엔진튜닝이 기계번역 수업의 핵심 내용이며, 특히 엔진튜닝이 석사 과정 수업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전문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 전후에 시행하는 다양한 역할은 번역의 최종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뛰어난 언어적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전문번역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기존 번역수업과의 연계되지 않은 SW사용법 위주의 수업

국내 대부분의 통번역대학원은 2016년을 전후로 컴퓨터보조번역(CAT) 과목을 개설하였다. 일례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는 한영과에서만 운영하던 CAT(computer aided translation) 수업을 2018년부터는 나머지 7개 학과에서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김정연, 2018: 77). 하지만 기존 수업과 연계되지 않은 CAT 수업은 자칫 툴 사용 방법론에 치중한 주입식 강의로 전락할 수 있다(진실희, 2019: 202).

해외 선행연구들은 기계번역에 특화된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번역수업에 기계번역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Mellinger, 2017). 그 이유는 첫째, 기계번역이 IT, 행정,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Gaspari et al., 2015: 11). 둘째, 기계번역에 특화된 수업은 ‘번역’적 측면에 소홀히 하고, 기계적 문제의 해결 등 ‘기계’적 측면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다(Kenny & Doherty, 2014: 277). 이는 학교가 아닌 번역회사로 구성된 산업협회 등이 실시하는 기계번역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하다(Kenny & Doherty, 2014: 277).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석사 과정에 개설된 모든 번역 과목들에 기계번역을 접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계번역 수업 모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III. 연구 설계

1. 대상 과목의 선정: 영한 정치법률번역

앞서 살펴본 통번역대학원에 개설된 기계번역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 과목은 영한 정치법률번역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법률 분야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많아 기계 번역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기계 번역은 같은 장르나 분야, 텍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단순 반복적 언어적 특성을 보이는 텍스트에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Doherty, 2016: 954). 정치 분야 텍스트의 경우 주요 인사나 기관을 지칭하는 고유명사,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관련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법률 분야의 경우 계약서, 법령 등 텍스트 타입을 막론하고 공통적이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사어(hereinafter, heretofore, thereto 등), 라틴어(mutatis mutandis 등), 유사어나 반의어를 함께 제시하는 반복 구문(any and all, in part or in whole) 등의 표현들이 다수 있다.

둘째, 정치법률번역은 석사 수준의 번역 과정에 주로 개설되는 전문 번역 과목이다. 최근에는 학부 통번역학과와 일부 대학의 학부 영문과에서도 번역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일반 번역’, ‘경제 번역’, ‘미디어 번역’ 등의 번역 수업은 학부나 대학원에서 공히 찾아볼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정치법률, 특히 ‘법률 번역’의 경우 대학원 수준의 번역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률 언어가 많은 전문어휘를 포함하여 일반 언어와는 차별되는 하위언어(sublanguage)로서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이해윤, 2020: 31-32). 나아가 국내 각종 사법기관, 로펌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 기업에서도 사내 규정,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법률 문서를 번역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번역은 전문번역사에 대한 수요가 큰 분야이다.

셋째, 정치법률번역 수업은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4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과목이다.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 학습자들은 번역의 일반적인 원칙과 방법에 대해 상당기간 학습하여, 번역 시 요구되는 텍스트 분석, 어휘 선택, 문장 구성의 원칙과 전략을 숙지한 상태이다. 번역입문자에게 컴퓨터보조번역도구를 이용한 번역이나 기계번역의 감수를 먼저 가르친다면, 이와 같은 보조 도구 없이 스스로 번역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번역 능력 계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는 신경 조직이 환경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두뇌가소성(plasticity)(Carr, 2004: 79) 때문이다. 유사한 실례는 임상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퍼즐 맞추기 게임 학습에 관한 한 연구에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게임을 배운 집단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게임을 익힌 집단에 비해 학습 속도는 더뎠으나, 학습 중 더 높은 집중력을 보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학습 효과 또한 더 오래 지속되었다(Nimwegen & Oostendrop, 2009). 따라서 전문번역수업에서 번역보조도구의 활용을 언제 가르칠 것인가는 수업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원의 상급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필자가 속한 대학원에서 2021년 9월에서 12월 까지 16주간 진행한 정치법률과목 수강생 5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강 후 첫 2~3주에 걸쳐 수업에 활용할 번역보조도구의 기본 기능을 설명하고 함께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매주 제공되는 번역과제를 번역보조도구를 이용해 번역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중간, 기말고사 역시 번역보조도구를 활용해 진행하였으며, 학기말 해당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취합, 분석하였다.

2. 컴퓨터보조번역 도구의 선정

수업에 사용한 컴퓨터보조번역도구(computer-aided translation tool)는 메모큐(MemoQ)였다. 가격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메모큐(memoQ)는 전세계에서 산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번역사 양성 및 메모큐의 활용 확산을 위해, 동 회사는 산학 협력 계약을 체결한 대학에 대해 학생 수 만큼의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트라도스(Trados)와 같이 번역 산업 내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수업용 버전(university copy)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다. 이후에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수업용 버전은 풀 버전의 기능 중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또한 메모큐는 직관적 사용자 화면(UI)를 갖추고 있어, 여타 CAT툴에 비해 사용법을 익히기가 비교적 쉬운 장점이 있다. 나아가 무료 제공되는 버전에서도 유료 서비스의 기능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업 중 교육한 메모큐의 기능은 프로젝트 관리, 번역메모리, 텀베이스, 라이브닥의 4가지였다. 이는 메모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여타 CAT툴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는 번역할 원문(ST)을 메모큐에 등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번역문(TT)과 관련 언어자원을 연동하여 관리하는 기능이다. 등록된 각 번역 프로젝트에 대

해 사용자는 단어 수, 번역 진도율, ST와 TT, 작성자, 담당 번역사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번역메모리(translation memory)’는 ST의 문장을 번역할 때마다, 해당 문장을 그 번역문과 대응시켜 저장하는 기능이다. 추후 TM에 저장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포함한 문장을 번역하게 된다면, 해당 표현에 대한 기존 번역이 제시되어 번역사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템베이스’는 일종의 단어장이다. 빈출 단어를 등록해 두면, 해당 용어가 나왔을 때 목표언어의 대응 단어를 제시해 준다. 엑셀로 저장한 단어장을 템베이스에 등록하거나,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역한 단어를 원천언어와 목표언어로 등록할 수도 있다. ‘라이브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문과 번역문을 일괄적으로 번역메모리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CAT툴을 사용하면 번역하면서 점진적으로 번역메모리를 축적하게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ST, TT 쌍이 많다면 라이브닥 기능을 활용해 한 번에 대량의 번역메모리를 구축할 수 있다. CAT툴 활용의 가장 큰 유익은 언어데이터의 재사용에 따른 번역 효율을 향상이다. ‘라이브닥’은 단 시간 내 언어데이터를 CAT툴에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CAT을 활용한 번역 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기능이다.

IV. 연구 결과

학기말 설문 조사를 통해 컴퓨터보조번역도구의 활용 전반 및 활용했던 각 기능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1>과 같이 학습자들은 CAT툴 활용도 전반에 대해 5점 척도 중 3.5점을 부여했으나, 향후 활용 의사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은 3.66점을 부여했다. 가장 유용한 기능은 프로젝트 관리였으며(3.63점), 뒤이어 템베이스(3.52점), 번역메모리(3.38점), 라이브닥(3.09점)의 순서였다. 각 항목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 나타난 구체적인 학습자 반응은 <표 1>과 같다.

<표 1> 컴퓨터보조번역도구의 활용에 대한 학습자 반응

	1	2	3	4	5	가중 평균
CAT툴의 전반	5.36%	10.71%	30.36%	35.71%	17.86%	3.50
향후 활용 의사	5.36%	12.50%	25.00%	25.00%	32.14%	3.66
프로젝트 관리	5.36%	7.14%	26.79%	41.07%	19.64%	3.63
번역메모리	3.57%	17.86%	30.36%	33.93%	14.29%	3.38
템베이스	5.36%	12.50%	26.79%	35.71%	19.64%	3.52
라이브닥	8.93%	25.00%	26.79%	26.79%	12.50%	3.09

1. CAT들의 유용성 및 향후 사용 의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CAT를 활용의 전반적인 유용성에 대해 3.50점으로 평가하였다. 학습자들이 설명한 장점은 1) 번역한 자료의 축적, 2) 번역 시간 단축, 3) 번역 시 누락 방지였다. 정치법률번역에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들을 저장해 둔 상태에서 번역하다 보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복습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법률 문서는 원문에 충실히 직역하며 원문에 중복적으로 표현된 단어라도 누락 없이 번역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 법률텍스트 번역을 CAT를 활용과 접목한 것이 특히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라이브러리 구축용으로 사용하면 너무도 좋은 프로그램(학습자 1).

시간을 들여서 한 번역들이 쌓이고, 그 데이터 안에서 번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현저히 떨어지는 번역은 잘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학습자 20).

hereinafter 등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등록해 놓으니 확실히 유용 (중략) 메모큐 없이 번역했다면 이미 접했던 표현임에도 검색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을 것(학습자 21).

이번 학기의 수업이 일반번역이 아닌, 법률, 계약서 번역에 관한 수업이었기에 본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더 피부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법률번역에는 분명한 패턴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프로그램이 단어 또는 표현을 제시해주지만 공부를 하면서 활용하다보니 (중략) 단어의 복습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학습자 38).

번역에 있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23).

가장 큰 장점은 빼먹은 문장이 많이 줄었고(학습자 30).

반면, CAT를 사용 미숙은 학습자들 다수가 공통적으로 꼽은 단점이었다. 앞서 학습자들이 작업 효율을 장점으로 꼽은 반면, CAT를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응답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뇌 가소성을 고려하여 CAT를 교육을 상급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적이다. 나아가 매주 부여되는 과제 분량이 300~400단어로 CAT를 활용으로 인한 상당한 효율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능을 사용하느라 번역에 집중이 안 됨(학습자 35).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편리했을 것 같지만,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더 오래 걸리고 잃어버리는 자료도 많았습니다(학습자 24).

템베이스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수기 번역보다 시간이 많이 걸림(학습자 25).

과정이 너무 복잡함. 워드에서 정리해서 옮기고 또 메모큐에 넣고 다시 export하면, 또 새

로운 파일로 생성되어 과정이 복잡함(학습자 19).

CAT툴을 사용하기에 작업물 크기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학습자 5).

아예 1학년 때부터 사용했으면, 오히려 번역에 많은 도움도 되고 유용했을 것 같지만, 졸업 바로 직전에 익혀 사용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학습자 49).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향후 CAT활용 의사를 3.66점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인 CAT활용의 유용성 3.50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활용 방법에 익숙해 지지만 한다면, CAT툴 활용이 유용하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프로젝트 관리 기능에 대한 평가

CAT툴의 개별 기능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1)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2) 기존 번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참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CAT툴을 활용하면, ST와 TT가 한 화면에서 모두 제시되어 편리하고, 문장 단위로 작업해야 하므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작업의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완성된 TT를 파일로 내보내기 하면 별도의 편집 없이도 ST와 동일한 포맷의 문서가 자동 생성되는 점이 편리하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기존 번역작업물을 프로젝트가 생성된 날짜나 제목 등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 또한 장점이었다. 그 외 프로젝트 관리 기능에 대한 단점은 별도로 지적된 바가 없었다.

원문이 왼쪽에 보여서 워드를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편리한 느낌(학습자 13).

문장을 병렬로 볼 수 있어 편했습니다(학습자 10).

워드에서만 작업하다가, 툴을 통해 한 셀에 한 문장씩 번역해나가다 보니 문장 단위의 구분이 되어 좋았습니다(학습자 41).

수정해야 할 부분이 표시되어 좋았습니다(학습자 2).

작업의 전체 진척도를 파악할 수 있고(학습자 46).

문단이 자동으로 잘 나뉘어 나오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번역을 누락하지 않는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좋았습니다(학습자 33).

(export하여 번역문을 생성하면, 원문과 동일한) 텍스트 포맷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점도 편했고(학습자 15).

워드에서 중구난방으로 번역하는 것 보다, 날짜, 제목을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작업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학습자 20).

전에 했던 번역을 모아 놓아 비슷한 내용끼리 묶을 수 있어서 유용(학습자 14).

3. 번역메모리 기능에 대한 평가

메모큐의 번역메모리 기능은 3.38점으로, 전체 6문항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번역메모리가 CAT툴의 주요 기능인 점을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였다. 번역메모리 기능에 대한 긍정 평가는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 패턴이 자동으로 제시된다는 점, 기존 번역과의 일치도(match rate)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앞에 언급했던 단어를 또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학습자 41).

계약서는 아직 초급자라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잊을 때가 있는데 바로 뜨니 좋아요(학습자 33).

쌍은 데이터로 같은 패턴의 문장이 자동으로 제시된다거나, 쌍인 게 별로 없음에도 비슷한 레퍼런스가 생겨나서 매우 유용(학습자 11).

하면 우측 상단에는 글로서리와 TM이 표시되며, 우측 하단에는 TM과 (현재 번역할 문장이) 무엇이 다른지 보여줍니다(학습자 30).

글로서리와 TM 매치율이 정확히 표기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학습자 42).

같은 패턴의 문장은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된다거나, 쌍인 게 많지 않음에도 비슷한 레퍼런스가 생겨 유용(학습자 7).

반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TM의 분량 자체가 한정적이며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매주 달라지다보니 TM 활용의 혜택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낮은 만족도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용어라도 문맥에 따라 활용이 다르므로, CAT툴에서 제시된 대응어를 맥락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제 막 사용하다 보니, TM이 많이 쌓여있질 않아 참고할 만한 TM이 없어서 작업물 크기가 작고 항상 다른 텍스트를 다루니 활용이 어려웠습니다(학습자 6).

적용 용례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잘 확인하지 않으면 오역(학습자 42).

4. 텀베이스 기능에 대한 평가

텀베이스의 유용성은 3.52로 번역메모리(3.52)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번역했던 단어들이 자동으로 제시되므로 기억하거나 검색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된다는 점, 저장된 단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어 오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맥락에 따라 같은 (원문의) 단어라도 다르게 번역해야 할 때, TB에서 골라 사용할 수 있

고(학습자 51).

나만의 용어집이 생겨난 것 같아 좋아, 다음 번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학습자 4).

기억력, 검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됨(학습자 11).

입력 실수를 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학습자 31).

알지만 당장 생각 안 나는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유용(학습자 41).

단점으로는 같은 단어라도 대소문자가 다르면 상이한 단어로 인식된다는 점, 번역메모리와 동일하게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템베이스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학교에서 그 효용을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CAT툴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 불편(학습자 16).

상시로 단어를 등록해야 해서 조금 귀찮기도 하고, TM과 마찬가지로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학습자 30).

취업 후 비슷한 텍스트를 매일 다량 번역해야 하는 경우 이용가치가 크다 생각(학습자 22).

5. 라이브닥 기능에 대한 평가

라이브닥은 3.09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정치법률번역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만큼 해당 분야의 텍스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라이브닥을 활용해 번역메모리로 전환할 자료 자체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지고 있는 ST와 TT를 CAT툴에서 읽어 오고, 그 안의 문장들을 1:1로 연결(alignment)하는 제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응답이었다. 또한 학교 수업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모아둔 자료를 단시간 내 TM으로 변환하여 관리하고 상호 공유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더 많이 사용했더라면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문장별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듯(학습자 31).

솔직히 LiveDoc은 align 외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제의 경우 동일한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없고, 일대일 병렬텍스트도 많이 없어서 LiveDoc을 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학습자 45).

LiveDoc 기능으로 저장한 문서와 같은 문장을 포함한 문서를 번역한 경험이 없어서 아직 장점을 크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학습자 23).

LiveDoc에서 TM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앞으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학습자 39).

처음에 해매서 몇 시간씩 LiveDoc 기능을 하나씩 눌러 보았습니다. 이제는 쉽게 셀을 정렬할 수 있게 되어서 LiveDoc 하나는 자신있어 졌습니다. 테트리스 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학습자 42).

6. 그 외 유용한 기능

수업 중 배우지 않았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 유용하게 사용한 기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주관식 응답에 품질관리(QA) 기능, 문장의 분절 및 합치기 기능, 문서 내 태그 처리, 인터넷 사전을 CAT툴에서 불러와 검색하는 웹서치 기능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툴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탐색을 하지 못했다거나 맥북을 사용해서 메모큐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계약서 번역 시 빠뜨리고 번역하기 쉬운 단어 등을 미리 등록해 놓은 후 QA를 돌리면, 누락된 단어를 쉽게 확인가능해서 프루프리딩이 쉬워짐(학습자 23).

Ctrl+t를 눌러 의미 단위로 문장을 잘라 보기 좋게 작업한 후, Ctrl+j로 다시 한 문장으로 합치는 것이 편했습니다(학습자 31).

과제에서는 태그가 많지 않았지만, 태그 처리도 편리했습니다(학습자 51).

같이 쓰이는 앞뒤 문장을 확인할 때(학습자 4).

철자 수정(학습자 45).

web search 기능. 따로 브라우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원문의 단어를 선택하여 우클릭한 후 메모큐 하단의 web search 기능으로 팝업창을 띄워 간단히 단어 검색이 가능합니다(학습자 18).

이것저것 버튼을 사용하다 중간에 (align이 되지 않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기존 데이터, 학교 과제가 지워질까봐 적극적으로 다른 기능을 탐색하지는 못했습니다(학습자 40).

맥북을 사용해서 메모큐를 잘 사용 못한 게 아쉽습니다(학습자 7).

V. 결론

전문통번역사를 양성하는 통번역대학원에서는 번역보조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수작업 위주의 번역교육을 실시해왔다. 통번역대학원에 개설된 기계번역 또는 번역보조도구 활용 수업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무료 NMT 서비스를 활용하며 2)포스트에디팅 외 전문번역사가 번역보조도구 활용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3)

기존 번역 수업과 연계되지 않은 툴 사용법 위주의 수업이라는 점에서 학부 수업과 차별화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많아 번역보조도구 활용에 적하며, 높은 난이도로 인해 대학원에서 3~4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정치법률번역 과목에 컴퓨터보조번역도구 활용을 접목하여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운영해 본 후,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CAT툴 활용이 번역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유용하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원 번역수업 중에는 툴 사용이 미숙하고, 툴 내 축적된 충분한 언어데이터가 부족하여 작업효율 향상의 혜택을 충분히 느끼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CAT툴을 자주, 장기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단기간 내 언어자산 축적과 잦은 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CAT툴은 장기간의 사용뿐만 아니라, 단기간이라도 자주 사용한다면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설문조사에서 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것 외에도, 활용할 언어자산이 충분치 않아 번역보조도구 활용의 유용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조별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번역에 참고할 이중언어 텍스트를 찾고 이를 번역메모리와 텀베이스로 구축하는 공동작업을 한다면, 단기간 내 언어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툴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능숙한 학습자들이 돕고, 상호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둘째, 대학원 상급생이 아닌, 신입생 등 보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CAT툴 활용법을 수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번역보조도구를 활용해 번역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습자의 번역 능력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교육 방법에 따른 번역 능력 변화 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칫 보조도구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번역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순미(2017), “신경망번역기 (NMT) 활용 학부 번역교육의 가능성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5(3): 5-37.
- 김정연(2018), “시장수요를 반영한 전문번역 교육방법 연구”, 『번역학연구』, 19(2): 71-88.
- 마승혜(2018),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53-87.
- 박지영(2017), “언어 기술 혁신과 통번역 산업의 미래: 20 대 글로벌 LSP 의 통번역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37-168.
- 박혜경(2018), “석사 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한일번역 전공생의 포스트에디팅 사례를 통하여”, 『번역학연구』, 19(3): 163-193.
- 이상빈(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37-64.
- 이상빈(2018a),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 이상빈(2018b), “국내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과정 (process) 및 행위 연구”, 『번역학연구』, 19(3): 259-286.
- 이혜윤(2020), 『법언어학의 이해』. 서울: 역락.
- 진실희(2019), “4차 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융합 통번역교육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0(4): 189-218.
- Carr, N. G. (2004), 『Does IT Matter?』,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Doherty, S. (2016), “The impact of translation technologies on the process and product of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947-969.
- Flanagan, M. & T. P. Christensen(2014), “Testing Post-Editing Guidelines: How Translation Trainees Interpret Them and How to Tailor Them for Translator Training Purpose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57-275.
- Gaspari, F., Almaghout, H., & S. Doherty(2015), “A Survey of Machine Translation Competences: Insights for Translation Technology Educators and Practitioner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3(3): 333-358.
- Kenny, D. & S. Doherty(2014),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in the Translation

- Curriculum: Overcoming Obstacles and Empowering Translato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76-294.
- Mellinger, C. D. (2017), “Translators and machine translation: knowledge and skills gaps in translator pedagogy”,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4): 280-293.
- Mónica, R. (2018), “An integrated curricular design for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tools: developing technical expertis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4): 355-374
- Nimwegen, C. & H. Oostendrop(2009), “The questionable impact of an assisting interface on performance in transfer situations”, 『Industri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39(3): 501-508.
- Raido, V. E. (2016), “Translators as adaptive experts in a flat world: From Globalization 1.0 to Globalization 4.0?”,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970-988.

【부록: 학습자 반응 설문지】

1. 메모큐 사용이 번역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전혀 아님	약간	보통	꽤	매우 그러함
1	2	3	4	5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2. 향후 번역시 메모큐 등 CAT툴을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님	약간	보통	꽤	매우 그러함
1	2	3	4	5

3. 메모큐에서 프로젝트 생성 기능이 번역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전혀 아님	약간	보통	꽤	매우 그러함
1	2	3	4	5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4. 메모큐에서 TM 기능이 번역에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전혀 아님	약간	보통	꽤	매우 그러함
1	2	3	4	5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5. 메모큐의 TB 기능이 번역에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전혀 아님	약간	보통	꽤	매우 그러함
1	2	3	4	5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6. 메모큐의 LiveDoc 기능이 번역에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전혀 아님	약간	보통	꽤	매우 그러함
1	2	3	4	5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7. 그 외 즐겨 사용했던 메모큐의 기능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